

광주 남구·광산 갑 전남 목포·무안 신안·해남 진도 완도·고흥 보성

광주·전남 6곳 '빅매치' 예고

총선 D-21

민주 공천 마무리 단계 ... 본격 총선 레이스

◇민주 광주·전남 추가 공천자

광주 서구를 **김영진**

광주 북구를 **김재균**

담양·곡성·구례 **김효석**

〈관련기사·명단 3면〉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들과의 막판 '빅 매치'가 예상되는 곳은 광주 남구와 광산구 갑, 목포시, 무안·신안, 해남·진도·완도, 고흥·보성 등 6개 선거구에 이른다.

우선 광주 남구의 경우, 지병문 민주당 후보와 강운태 무소속 후보와의 러린 매치가 이뤄진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탄핵 후폭풍으로 간발의 차 승부가 갈린 상황이어서 이번 승부가 더욱 관심을 끌고있다. 광산구 갑에는 구청장 출신의 무소속 송병태 후보가 김동철 민주당 후보와 맞붙는다. 송 후보는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김 의원에 도전장을 던진 상황이다. 목포시는 최대 관심 지역이다. 공천 배제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박지현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무소속 출마가 유력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전 실장은 공천 배제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놓고 있으며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무소속 출마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천에서 탈락한 이상열 의원에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높다. 무안·신안 지역구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고 있어 민주당 후보와 접전이 예상된다. 또 공천에서 탈락한 채일병 의원과 김영록 전 전남부지사도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흥·보성도 진종근 전 고흥군수가 무소속 체비를 하고 있으며, 신중식 의원에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통합민주당의 18대 총선 공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광주·전남지역 6개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들과 무소속 후보들 사이 '빅 매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18일 광주·전남 3곳을 비롯한 전국 16곳의 4차 공천내정자를 확정, 발표했다.

광주 서구를 김영진 전 농림부장관, 광주 북구를 김재균 전 북구청장, 담양·곡성·구례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추가로 공천을 확정지었으며, 전라공천지역인 무안·신안과 광주 서구갑, 목포, 해남·진도·완도, 고흥·보성 등 5곳의 공천만 미확정 상태다.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 4·9총선을 건전한 정책선거로 이끌기 위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이 18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공명선거 공든 탑 쌓기' 퍼포먼스가 함께 진행됐다. 왼쪽부터 김성수 광주시선관위 상임위원, 한영 한나라당 최고위원, 박경민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오세욱 광주시 선관위원장, 김기수 민노당 광주시당 위원장, 황인창 광주경찰서 공동대표.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李대통령 아침회의 따라하기 지자체 '조기 출근' 열풍

贊 “당연한 조치”

反 “코드 맞추기”

전남지역 일부 지자체와 공공기관들 사이에 출근시간 앞당기기 열풍이 거세지고 있다. 또 일선 경찰서와 소방서에서도 직원들이 아침에 일찍 출근해 법질서 확립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빨리 출근하기'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공직자들의 조기 출근을 독려하면서 대다수 정부 부처의 실무부서장급 아침회의가 오전 7~8시로 종전보다 1시간 이상 앞당겨 진데서 비롯됐다. 화순군은 일하는 분위기 조성 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 1시간 일찍 출근하기 자율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화순군은 지난 13일부터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1시간 빠른 '8시 출근 자율실천운동'을 시작했으며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열리는 간부회의를 오전 8시에 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정부시책에 호응하고 1시간 빠른 업무 처리로 역동적인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 운동을 전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여주시도 매달 한차례 열리는 간부회의 시간을 오전 7시로 변경했으며 목포해경도 출근 시간을 1시간 앞당겼다. 광주·전남 경찰의 경우 전 직원들이 아침마다 주요 도로에서 법질서 예방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기관에서는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의 출근을 앞당겨 대민원 봉사활동이나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으로 이용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일부 경찰관들은 “법 질서 확립은 당연한 일이지만 새정부 코드 맞추기라는 꼭 눈총도 있는 것 같다”며 “공무원들에 대한 평가는 업무량과 업무 처리 능력 등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공무원들도 “일이 밀릴 경우 초과근무는 물론이고 휴일도 반납하는 것이 일반화됐다”며 “업무 효율성이나 출근 거리, 육아 등을 고려해 타율이 아닌 자율 출근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채희정기자 chae@kwangju.co.kr

“농사짓는 사람 심정으로 가야”

李대통령,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 주문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공직자들의 인식 전환과 함께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전북 전주시 생물산업진흥원에서 열린 농어업식품부 업무보고회에서 “여러분은 스스로 변해야 하고 농사짓는 사람 심정으로 가야 한다”면서 “그동안 어쩌면 관료로서 농어민에게 군림했다고 볼 수 있는 데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변해야 농민도 귀를 기울인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유통구조 개선 문제와 관련, “서울시장 때 가락시장에 가보면 900원짜리 배추 한 포기 3천원, 5천원 한다. 농민은 원가도 안 되게 팔고 수요자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배추를 사먹어야 한다”면서 “2배 값을 줘도 바로 전달되면 농민·수

요자 모두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농촌을 기업화해야 한다. 우리끼리 헤서는 안 되고 성공한 젊은 CEO(최고경영자)를 영입해 국내에서 경쟁력 있는 농어촌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메이드 인 광주’ 기아 신차 AM 뜬다

9월부터 본격 양산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새로운 수출 전략차종인 AM(프로젝트명)이 오는 9월부터 양산에 들어간다. CUV(Crossover Utility Vehicle·스포츠 유틸리티의 성능과 세단의 승차감을 접목시킨 차량) 스타일의 AM은 스포티지, 뉴캐렌스와 함께

‘트로이카 체제’를 구축, 광주공장 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공장은 이달 초 연구소 등에서 시험생산을 거쳐 9월부터 뉴캐렌스 생산라인에서 AM과 뉴캐렌스를 함께 생산할 계획이다. AM은 유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박스카(지프 모형)로, 배기량만 1,



600cc로 알려져 있을 뿐 나머지 제원과 성능은 베일에 싸여 있다. AM은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 78회 제네바 모터쇼’에 큰

셉트카 SOUL(소울·사진)이라는 이름으로 선보이면서 출시되기도 전에 젊은층으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다. AM의 디자인을 미리 짐작하게 할 수 있는 콘셉트카의 제원은 길이 4천100mm, 폭 1천785mm, 높이 1천610mm로 엔진은 가솔린과 디젤로 나눠 탑재했다. 광주공장 관계자는 “내년부터 연간 10만대를 생산, 이중 6만대는 수출하고 4만대는 내수로 판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

미의
 피부미용 화장품
 미의, 아름다움의 시작